

칠죄종 (七罪宗)과 칠극 (七克)

우리 가톨릭교회는 전통적으로 ‘칠죄종’이라는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1866 참조). 즉, 다음의 일곱 가지는 우리를 죄로 이끄는 죄의 원천, 죄의 근원으로서 그 자체가 죄이면서 동시에 다른 죄와 악습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1) 교만: 교만은 자기를 과대평가하여 남에게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행위 혹은 태도로서 모든 죄의 근본이 됩니다. 이 교만은 우리를 자만, 야심, 허영, 이유 없는 고집, 말다툼 등으로 기울게 합니다.

2) 인색: 인색은 세상물질에 대해 지나치게 애착하는 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 부정 축재, 사기 등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3) 음욕: 음욕은 성적 쾌락을 무질서하게 추구하고 즐기는 것으로 사랑과 생명의 신비를 더럽힙니다.

4) 분노: 분노는 복수하고자 하는 무질서한 욕망으로서 불평불만, 모욕, 악담, 욕설, 폭행, 싸움 등을 초래합니다.

5) 탐욕: 탐욕은 음식을 과도하게 탐하는 것으로 정신력의 약화, 게으름, 건강 상실 등을 초래합니다.

6) 질투: 질투는 남이 잘되는 것을 시기하는 것으로 비방, 무고, 증오 등을 초래합니다.

7) 나태: 나태는 어려운 일을 피하고 싫어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것으로 무기력, 시간 낭비, 선행의 기피, 정신 산만 등을 초래합니다.

이와 같은 칠죄종은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로서 일종의 ‘악한 습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을 태생적으로 안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조심하지 않으면 죄에 떨어지고, 그로 인해 하느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자신을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 칠죄종에 빠지지 않게 경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매일의 양심성찰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이 칠죄종에 대응할 수 있는 덕행을 적극적으로 쌓아야 합니다. 스페인 출신의 예수회 신부였던 디에고 판토하(D. Pantoja)가 1614년에

중국 북경에서 쓴 ‘칠극대전’이라는 책에서는 최악의 뿌리가 되는 이 칠죄종을 극복할 수 있는 덕행으로 은혜, 겸손, 절제, 정절, 근면, 관용, 인내의 일곱 가지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1) 겸허한 마음으로 오만함을 극복함

2) 사랑으로 시기와 질투를 극복함

3) 인내심으로 분노를 극복함

4) 정결함으로 음욕을 극복함

5) 자선으로 인색 함을 극복함

6) 절제 생활로 탐욕을 극복함

7) 부지런함으로 게으름을 극복함이 그것입니다. “덕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몸에 뻗 확고한 마음 가짐”(가톨릭 교회교리서 1803)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반복 훈련을 통해 익힌 좋은 습관인 것입니다. 덕을 갖추기까지는 어려움이 따르지만, 일단 몸에 익힌 좋은 습관은 악습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칠죄종을 물리치게 되는 법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덕행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사도 바오로의 말씀에 따르면 칠죄종을 극복할 수 있는 덕행들은 결국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막는 법은 없습니다.”(갈라 5, 22-23)

김흥주 베드로 신부

종신부제

종신부제는 초대 교회때 12제자들이 기도와 전교하는 일에만 힘쓰기도 바쁘데 박해로 인해 늘어나는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는 것이 너무 힘들어 7명의 보조자를 선출하여 그 일을 전적으로 돌보게 한데서 부제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사도 6). 초대교회 때 첫 순교자인 스테파노가 바로 최초의 일곱 명 부제 중의 한 분입니다. 중세에 들어서면서 부제들이 부제의 사목을 하려 남아 있지 않고 모두 사제로 서품됨에 따라 종신부제 제도는 자연히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1765년 트론티 공의회 때 다시 종신부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그 당시만 해도 사제의 수가 많아서 종신부제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때(1962년) 점점 줄어드는 사제의 숫자를 감안 종신부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부제는 성직자이며 봉사직에 종사하도록 주교가 서품하고 임명한다. 부제는 주교와 그를 돕는 사제들과 공동으로 말씀의 전례에서 봉사하고 또 자선을 통해 하느님의 백성을 위해 봉사한다. 부제의 직책은 세례를 주고, 성체를 분배하며, 교회의 이름으로 혼인 성사를 집행하거나 돕는 일, 죽는 사람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해주는 일, 공동체에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강론하고, 가르치는 일, 공소 예절 인도,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 장례식과 하관식을 인도하는 일 등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부제는 자선과 봉사의 임무에 봉헌된 사람이어야 한다.” (Vatican II, Lumen Gentium, 3, 29)
종신부제는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대부분 45세 이상의 결혼한 사람들로써 재정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들은 하느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직장을 가지고 가정을 지닌 이들은 4년에서 5년간의 어려운 수련을 받은 후 부제로 서품 됩니다.
종신부제는 주로 북미와 유럽에서 많이 서품을 받으며 아시아나 아프리카에는 아직도 종신부제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나라들이 많습니다. 한국은 아직 도입하지 않은 나라이고 일본은 이미 도입한 나라입니다. 미국의 경우 15,000명 이상의 종신부제가 성당 사목은 물론 병원, 양로원, 감옥 등에서 사목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1,000여명의 종신부제가 있으며 현재 북미에는 50여명의 한인 종신부제들이 여러 분야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현하 야고보 부제 소개

이현하 야고보
종신부제는 함평중학교와 광주 일고를 나왔으며,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후 1967년에 캐나다에 유학을 왔고 McGill 대학교에서 석사학위 및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1990년에 종신부제 수련에 임했고 4년간의 공부를 끝내고 1994년 부제로 서품 받았습니다. 1994년에서 1998년까지는 한인천주교회에서 부제로 봉사했고 1998년부터 현재까지 Mississauga 캐나다인 성당, St. Martha & Mary Parish, 강원도 삼척시 호산공소에서 봉사하였습니다.

본당발전을 위한 기도

○ 사랑이신 주님, 저희가 주보성인인 성 정하상 바오로의 모범을 본받아 열심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 주님께 받은 모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주님의 보살핌 속에 하나되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의 계명을 가정과 이웃, 지역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 말과 행동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앞장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 본당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주님의 기쁨소식을 널리 전하게 하소서.

◎ 주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제의 해”에 바치는 사제를 위한 기도

○ 영원한 사제이신 예수님. 주님을 본받으려는 사제들을 지켜주시어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소서.

●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제직에 올라 날마다 주님의 성체와 성혈을 이루는 사제들을 언제나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주소서.

○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제들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 사제들이 하는 모든 일에 강복하시어 은총의 풍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 저희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그들이 더없는 기쁨과 위안을 얻고 천국에서는 찬란히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 아멘.

2009년 8 월 23일 봉헌금 내역
주일헌금 : \$ 685.00
교 무 금 : \$
감 사 금 : \$
성전건립 : \$ 80.00 186(80)
(성모동산 누계 : \$1975.00)
성모동산 조성을 위한 헌금을 시작한지 몇 달 안 되었지만 위의 기금이 모아졌습니다. 주님보시기 좋은 공동체가 되도록 마음과 뜻을 모으도록 합니다.
합 계 : \$ 765.00

본 당 소 식

◎ 본당 창립 기념 신앙 특강

일시 : 오늘 미사 중 (30분)
주제 : 실천하는 신앙생활
강사 : 이현하(야고보) 부제

◎ 사목회의 안내

다음 주일(9월 6일) 미사 후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 런던본당 주최 골프대회 안내

일시 : 9월 2일(수)
※ 행사참석 관계로 수요일 평일미사는 없습니다.

◎ 온타리오 한인 성당 합동 신앙대회

일시 : 9월 5일(토)
일정 : 오후 1시 미사
 오후 2시 30분 십자가의 길
장소 : Midland Martyrs Shrine
※ 함께 가실 교우는 사목회 총무 한택중
 막시모에게 문의바랍니다.

◎ 본당 창립 기념접시 주문 안내

본당 창립 기념패를 원하시는 교우들 위해 주문
판매 할 예정입니다. (오늘 마감)
예상가는 약 \$ 60 입니다.
▶ 신청 : 사목회 총무 한택중 막시모

◎ 견진성사 신청안내

견진 대상자는 신청서를 기재하여 총구역장에게
신청하시기 주십시오. 신청서는 성당 입구에
비치하였습니다.

◎ 2009년 여성 꾸르실로 주말 신청 안내

일 시 : 10월 15일(목) - 10월 18일(주일)
장 소 : Queen of Apostles Renewal Centre
신청마감 : 9월 15일 (화) / 참가비 : \$ 320.00
문의: 율뜨레야 간사 김현태 요셉

◎ 영명축일 명단을 게시판에 붙여 놓았습니다.
오늘 마감하오니 최종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9월 안내 담당은 워털루 3구역입니다.

▷ 10월 : 워털루 2구역
▷ 11월 : 청소년부

◎ 교육관 관리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 워털루 2구역 : 9월
▷ 워털루 3구역 : 10월

◎ 성모회에서 알려드립니다 .

9월부터 친교 식사가 시작됩니다. 성모회가 각
구역의 협조를 얻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선
기금을 모으는 것이오니 어려우시더라도 적극
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9월 3일 오후 6시 교육관에서 모임 있습니다.)

= 광고 =

Cambridge Town Center 내에 있는 일식당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부문 : 스시보조, 데판야끼요리사, 주방헬퍼,
 주방아주머니
전화 : 416-919-9091

▣ 본당신부 단상(斷想)

연탄 한 장 - 안도현 시

또 다른 팔도 맑고 맑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방구들 선득선득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조선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차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 오르는 거라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뜻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파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 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
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눈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



KW한인천주교회

St. Paul Chung Parish

516 Franklin St. N., Kitchener
Ontario, Canada. N2A 1Z4

☎ 519 208 1913
FAX 519 954 1913

주임신부 김선호 루카

사목회장 장명길 바오로 ☎519 758 9526
사무봉사자 ☎ 519 894 3533

2009년도 사목지침

“말씀과 성체 안에서 본당 토대 다지기”

실천사항

1. 성서 쓰기, 읽기
2. 평일미사 참례하기
3. 주요기도문 다시 외우기

주일 미사	주일 오후 5시
평일 미사	수 오전 10시 금 오후 8시
유아 세례	1주일 전 신청
병자 성사	상시
혼인 성사	10개월 전 신청
예비자교리	10개월, 통신교리는 1개월 보충
고해성사	미사 전 20분
축복식(차량,주택,가게)	1주일 전 신청

22009-37호 2009. 8. 30.

연중 제 22주일 미사 전례

해 설 이명희 차주 해설 노재현

성 가

입 당 (22) 천지 생기기전
봉 헌 (214) 주께 드리네
성 체 (180) 주님의 작은 그릇
되 장 (31) 이 크신 모든 은혜

화 답 송 ◎ 주님, 당신의 천막에 누가
머물 수 있으리이까?

복음환호송 ◎ 알렐루아

하느님 아버지는 뜻을 정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어, 우리가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네. ◎

영성체송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해
간직하신 그 선하심, 얼마나 크시옵니까!

	독	서
8월 30일	김동규	김은옥
9월 6일	신상우	신계연

	봉	헌
8월 30일	최우석	최연옥
9월 6일	김동규	김은옥

	복	사
8월 30일	안아림	노승범
9월 6일	최예슬	강수현

	친	교
9월 6일	워털루 1구역	